

KIA 후반 레이스...반등이나 추락이나

롯데와 중하위권 마감
투타 불균형으로 고전
후반 활약에 흥행 달려



17일 재개하는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후반 레이스에서 흥행의 양축인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초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흥행의 '보장 수표'로 여겨지는 '엘리트' 동맹 중 LG 트윈스는 5할을 넘는 승률로 4위를 달리나 KIA와 롯데는 중·하위권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KIA는 NC 다이노스에 3경기를 내리 패하는 등 5연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롯데도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충격의 3연패를 당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침체한 분위기를 추스르지 못하면 KIA와 롯데는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동력을 잃는다.

KIA는 삼성, kt wiz를 광주로 불러 홈에서 6연전을 벌인다. 롯데는 선두 두산 베어스와 서울 원정을 치른 뒤 홈으로 돌아와 SK 와이번스와 격돌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KIA는 '디펜딩 챔피언'답지 않게 투타 불균형으로 좀처럼 승수를 쌓지 못했다. 롯데는 선발과 볼펜 모두 무너져 고전했다.

기본 좋게 팀과 재계약하고 첫발을 치



지난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KIA 4회말 2사 1.3루에서 8번타자 박준태가 우월 스리런홈런을 날리고 홈인하며 유민상 등 동료선수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르는 양 팀 감독의 표정도 좋을 수 없다.

김기태 KIA 감독은 팀을 우승으로 이끈 지난해 말 3년간 총액 20억원에 재계약했다.

지난해 롯데를 5년 만에 포스트시즌으로 인도한 조원우 감독도 재신임을 받아 3년간 총액 12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두 감독은 올해 구단의 신임에 걸맞은 '기본' 성적을 내야 하나 전반기엔 기대를 밀었다. 잔여 경기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내년엔 꼭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에 쫓기기에 후반기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력이 작년만 못해 연승을 타기

어렵다는 점이 두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KIA는 지난해 헥터노에시와 양현종의 원 투 펀치를 앞세워 시즌 초반 열풍까지 달아났다. 롯데도 강력한 볼펜을 앞세워 지난해 8~9월 32승 14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올리고 가을 야구 초대장을 따냈다.

KIA는 2승 5패, 평균자책점 6.22로 부진한 외국인 원수 투수 팻단의 교체로 돌파구를 찾아볼 만하다. 롯데 반격의 열쇠는 마운드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공격력이 쥐고 있다.

시즌 관중 500만 명을 돌파한 8일 현

재, KIA의 홈 관중은 지난해보다 7% 감소한 57만5천189명에 머물렀다.

롯데 홈 관중은 저조한 성적에도 작년보다 6% 증가한 62만373명으로 집계됐다. 구도(球都) 부산의 열기를 고려할 때 롯데가 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관중 증가는 볼 보듯 뻔하다.

올해 KBO리그는 미세먼지와 장마, 러시아 월드컵 축구 등 외부 변수에도 작년보다 2% 증가한 관중을 동원했다.

각각 6위와 8위에 처진 KIA, 롯데가 분발하면 순위 싸움은 더욱 뜨거워지고 관중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연합뉴스

추신수, 50경기 연속 출루 달성

루스와 어깨 나란히...시즌 100번째 안타

'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50경기 연속 출루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캠프드 야드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방문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첫 타석에서 예프리 라미레스를 상대로 볼넷을 골랐다.

5월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을 시작으로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출루 행진을 이어가는 추신수는 1923년 베이브 루스(뉴욕 양키스)가 작성한 개인 최장 연속 출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기록(중전 스텔스 키 이치로 43경기), 텍사스 구단 단일시즌 기록(중전 홀리우 프랑코 46경기), 현역 빅리그 신기록(중전 앨버트 푸홀스·조이 보토 48경기)을 차례로 넘어선 추신수는 이제 MLB 역사 속 전설 사이에 이름을 올린다.

1915년 타이 콥(디트로이트 타이거스)과 1943년 스티븐 무지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세운 55경기 연속 출루가 시권에 들어왔고, 1998~1999년 데릭 지터(뉴욕 양키스)와 2003년 배리 본즈(샌



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57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머지 않았다.

이 부문 메이저 리그 최장 기록은 '마지막 4할 타자'

데드 윌리엄스가 1949년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수립한 84경기다.

추신수는 연속 출루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뒤 부담 없이 상대 투수를 괴롭혔다.

3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두 타석 연속 볼넷을 골랐고, 5회에는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다. 두 타석 모두 풀카운트 대결을 벌였다.

추신수는 0-1로 끌려가던 8회 선두타자로 나와 마이클 기번스를 상대로 올 시즌 100번째 안타인 좌전 안타를 때린 뒤 대주자 이시야 키너 팔레파와 교체됐다.

2타수 1안타 2볼넷으로 활약한 추신수의 타율은 0.290(345타수 100안타)으로 소속 올랐다.

그러나 텍사스는 추신수의 3출루 활약을 살리지 못한 채 0-1로 쳐 시즌 55패(41승)째를 당했다.

/연합뉴스

강진군청 사이클, 4km단체추발 대회新

전국대회 황범연 금 2·동 1개

강진군청 사이클팀이 실업팀의 황범연이 전국대회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2관왕에 올랐다.

15일 강진군청 사이클팀에 따르면 최근 충북 음성벨로드롬에서 실시된 2018 음성인삼배전국사이클대회 남자일반부 4km개인추발 경기에 나선 황범연(20)이 1위로 골인했다.

황범연은 이날 4분38초692로 결승선을 통과, 2위 강석호(광주KPSO·4분44초339)와 3위 유연우(기평군청·4분44초633)를 밀찌감치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상표·김지호·황범연·배승빈으로 구성된 강진군청은 전날 4km단체추발에서 4분14초812의 대회신기록으로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진군청의 이날 기록은 2위 금산군청(4분21초183), 3위 광주KPSO(4분21초878)에 7초 가량 밀찌감치 앞선 동시에, 지난 2015년 국군체육부대가 작성한 대회 기록(4분16초062)을 2초 가량 능가한 호기록이다.

특히 강진군청은 4km단체추발에서 올해 KBS배전국사이클대회(6월·강원도양양)에서의 동메달, 지난해 98체전 은메달



아쉬움을 보지않게 털어냈다. 황범연은 1km독주에서도 1분05초150으로 김용태(전주시청·1분04초933), 김도현(부산지방공판스포츠원·1분04초944)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황범연은 향후 강진군청 간판 스피리터로서의 성장을 예고했다.

전남도체육회 김홍식 상임부회장은 "우리 전남체육회에서는 현재 강진군청 사이클팀이 속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남사이클경기장 합숙소 여건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회신기록 작성 등의 결과가 좋아 매우 흡족하다"며 "체육은 애정과 관심에서 그 결실이 맺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전국대회 우승

'2018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

광주은행은 지난 14일 화순군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이 창단 7개월 만에 남자 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말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에서 창단 5개월 만에 남자 단체전 동메달 획득 후 잇달아 달성한 성과이다.

특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은 8강과 4강에서 밀양시청과 김천시청, 결승전에서 성남시청 등 강력한 우승후보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유갑수 초대감독과 선수 7명, 트레이너 1명 등 총 9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3년내 전국대회 우승과 우수선수 국가대표선수 발탁을 목표로 남자 실업팀을 창단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국대회 우승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앞으로는 국가대표 선수 배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오는 9월 29~30일 알찬 생활체육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광주은행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송중욱 은행장은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을 성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배드민턴이 우리 지역 스포츠 발전은 물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에까지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체육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벨기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토마 뫼니에(왼쪽 두 번째)가 골을 넣은 뒤 다함께 기뻐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이날 전반 4분에 터진 뫼니에의 결승 골과 후반 37분에 나온 에덴 아자르의 추가 골로 2-0으로 승리하며 이번 대회를 3위로 마무리 했다. /AFP=연합뉴스

벨기에 '황금세대' 월드컵 최고 성적 마무리

3·4위전서 잉글랜드에 2·0 완승...골맛 본 선수 10명



벨기에 황금세대가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마무리했다.

벨기에에는 15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3·4위전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1986 멕시코 월드컵 4위를 넘어선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비록 사상 첫 결승 진출엔 실패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에 성공했다.

3·4위전까지 오는 여정도 아름다웠다. 에덴 아자르(첼시), 로멜루 루카쿠(맨

체스터 유나이티드),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등 황금세대의 활약이 빛났지만 더 빛난 것은 이들이 완전히 한 팀으로 뭉쳤다는 것이다.

각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스타 선수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적으로 만난 사이지만 벨기에 유니폼을 입고는 완벽한 원팀을 구축했다.

주장 아자르를 중심으로 한 23명의 선수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지휘 아래 그 어느 팀보다 단단한 조직력을 갖췄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벨기에의 최대 강점을 '팀 정신'(Team Spirit)으로

꼽고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에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후보 선수나 조력자의 역할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한두 명의 스타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벨기에의 강점은 폭넓은 득점원으로도 확인된다.

벨기에에는 조별리그 3경기과 16강, 8강, 4강, 3·4위전까지 7경기를 치르는 동안 모두 16골을 넣었다.

이번 월드컵 출전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이다. 이중 상대 자책골을 제외한 15골을 모두 10명의 선수가 합작했다.

루카쿠가 가장 많은 4골을 넣었고, 아자르도 3·4위전 득점까지 3골을 넣었다. 케빈 더브라위너, 드리스 메르텐스, 미

치 바추아이, 아드난 야누자이, 나세르 샤텔리, 마루안 펠라이니, 안 페르통언까지 1골씩을 넣으며 벤치 멤버도, 수비수도 득점에 가담했다.

간판 골잡이지만 쳐다보지 않고 누구든 기회가 생기면 슈팅을 날리고 성공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단일 대회 한 팀에서 10명이 골을 넣은 것은 1982 스페인 월드컵의 프랑스, 2006 독일 월드컵의 이탈리아가 기록한 최다 기록과 같은 것이다.

벨기에가 이번 대회에서 공격력이 두드러진 팀이긴 했지만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도 탄탄했다.

이번 대회에서 나온 '원팀' 벨기에의 인상적인 모습은 향후 몇 년간 유럽 무대에서 '붉은악마'(벨기에 대표팀 별명)가 보여줄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연합뉴스